한국 종교계 불합리한 전통성 짙고 근대화 성과 아직 미흡

'21세기 한국사회와 종교문화' 세미나

"한국 종교계는 21세기가 가져올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전근대적 요소를 먼저 정리하고, 환경보존운동 등 새로운 세기가 요구할 각종 실천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21세기 한국 사회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2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원장 김몽은) 제2차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세기와 천년을 눈앞에 둔 한국 종교계에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화두(話頭)'가 던져졌다.

"21세기 한국불교 선풍진작 노력 대사회 자비실천 둘다 화두 삼아야"

◇21일 열린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정병조교수는 "21세기 한국불교는 중생을 향한 자비실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길희성 교수(서강대 종교학과)는 '21세기 한국 종교문화의 전망과 과제'에서 "한국 종교계는 그 자신 속에 내재하는 전근대적 요소부터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길교수는 "아직도 불합리한 전통성이 매우 짙고, 근대화의 기획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한 사회에서 섣불리 탈근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스스로 알에서 깨어나 근대화하지 못한다면 한국 종교계는 지금까지 누렸던 프리미엄을 앞으로는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를 이룬 서구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야 한다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서구에서 근대화는 곧 종교적 독선이나 편견에 대한 합리주의의 승리를 의미했고 맹목적 권위와 전통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며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계몽적 해방의 담론과 실천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길교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종교 다원사회를 연출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종교계의 사명은 다양성 가운데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 종교계의 전근대적 요소 청산을 위한 공동과제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과 책임있는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도덕적 기반을 조성하고, △체제에서 소외되고 탈락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존운동, 생명운동, 평화운동, 그리고 의미상실의 극복 등 사회적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분과 주제발표에 나선 정병조 교수(동국대 국민윤리)는 '21세기 한국불교 무엇을 해야하나'에서 "출가자들은 청정승가를 확립함으로써 불자들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하며 재가불자들은 포교·조직·불사(佛事) 등 모든 분야에서 불교사상의 '현실적 응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질적 문화와의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 정교수는 "범세계적인 안목과 함께 스스로의 내면을 닦아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조계종 사태를 "선종이념의 상실에서 비롯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발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불교는 선풍의 진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밖에 정교수는 "자신만의 믿음을 절대화하는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적 발상"이라며 21세기 한국불교가 담당해야할 대사회적 역할로 "종교적 경건성이나 진리성을 고수하기 보다는 중생들을 향한 자비실천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동국대 불교관련 박사논문 3편

제선스님 '김동화의 불교사상 연구'
박영기씨 '허응당 보우 연구'
정성준씨 '딴뜨라의 수행체계 연구'

◇제선스님

◇박영기씨

◇정성준씨

동국대 '98 후반기 불교학 박사논문으로 제선스님의 '뇌허 김동화의 불교사상 연구'와 박영기씨의 '허응당 보우 연구', 정성준씨의 '비밀집회딴뜨라의 수행체계 연구' 등 세 편이 발표됐다.

교학(教學) 중심의 연구가 교계 학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근대 불교연구의 '거장(巨匠)' 뇌허 김동화(雷虛 金東華·1902~1980) 박사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제선스님은 "뇌허 김동화 선생은 근대 한국사회 대격변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화, 사회화, 대중화 하는 등 한국불교 발전에 큰 자취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제선스님은 김동화 선생의 불교사상을 첫째, 민족사상의 근간이었던 불교사상을 망각한 정치·사회 계층에 대해 불교사상을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정립하여 제시했으며 둘째, 분열상을 보이며 기복화와 정쟁(政爭)을 벌이던 불교종단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으로 회귀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셋째, 현대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대중포교의 기치를 세워 앞장 선 것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했다. 제선스님은 "이러한 점에서 김동화 선생은 새학문을 연구한 유학승으로서, 또 포교전법사이자 교육행정가로서 근대 한국불교의 발전을 이룬 선각자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박영기씨는 '허응당 보우(虛應堂 普雨) 연구'에서 조선중기 보우스님(1515~1565)의 생애를 조명하며 〈허응당집〉 〈나암잡지〉 〈권념요록〉 등 4권의 저서를 통해 그 사상을 재조명했다. 박씨는 "선과 화엄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의 중용과 주역, 그리고 노장사상이 원융무애하게 용해된 '삼교회통(三敎會通)' 사상에서 미혹함과 이기심의 두 견해를 떠난 보우스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며 "이러한 보우스님의 사상은 조선 척불의 상황에서도 불교를 중흥시켜 승단의 체제를 정비하는 등 스러져가는 불교에 새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준씨는 '비밀집회딴뜨라'가 후기밀교 수행체계에 기여한 부분을 밝히며 "비밀집회딴뜨라는 후기밀교를 탄생하게 한 교리적·실천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비밀집회딴뜨라'의 성립 이후 인도의 후기밀교는 육신에 대해 더욱 세밀한 생리적 해석과 수법을 더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비밀집회딴뜨라를 통해 본 후기밀교는 인도라는 특수한 종교와 문화토양 아래 대승불교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 발전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화엄경소초과도집' 발간

80화엄 전편 科圖로 첫 완성

〈화엄경〉의 방대한 분량과 핵심교의를 집약하여 도표로 나타낸 〈화엄경소초과도집(華嚴經疏鈔科圖集)〉이 발간됐다. 80화엄 전편의 내용을 도표로 그려 전개하고 있는 책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봉선사 능엄학림(강주 월운)에서 1996년 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청량국사(淸凉國師·?~839)의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를 공부하며 그 과목(科目)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 방대한 분량과 내용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화엄경〉을 문단으로 정리한 것이 '과목'이라면, 과목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도표화한 것이 '과도'다.

월운스님은 "〈화엄경소초과도집〉의 발간으로 방대한 〈화엄경〉이 더 이상 비밀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과 포교의 일선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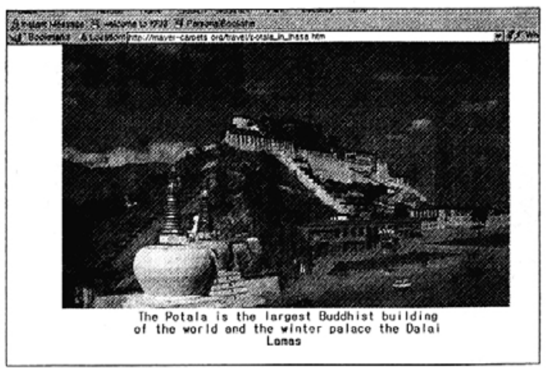
인도학불교학회 인터넷서비스 제공

http://indra.indranet.net/forum

일본 한국유학생 모임 '인도학불교학연구회'의 학술지 게재논문이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비백교학연구소(소장 혜묵스님)는 단행본으로 출판된 '인도학불교학연구회' 학술지 제6호 〈일본의 인도철학과 불교학 연구-그 역사와 현황〉(아세아출판사 刊)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글 파일로 된 다운로드(download)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되는 논문은 △일본의 인도철학 연구현황(심봉섭) △일본의 초기불교 및 남방상좌부불교 연구의 역사와 현황(정원스님) △일본의 구사학·유식학 연구현황 개관(이종철) △일본의 초·중기 중관파 연구사-나가르주나의 저서, 이해방식 그리고 해석(이혜경) △일본의 후기 중관파 연구(이태승) 등이다.


The Potala is the largest Buddhist building of the world and the winter palace the Dalai Lamas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 티벳 성지순례

조캉사원·포탈라궁 등 샅샅이 구경
카일라스산의 만년설도 눈길 잡아

인터넷에서 가장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티벳 관련 사이트다. 티벳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티벳인들은 전통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티벳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공간에서의 티벳 성지순례는 이들 사이트를 선별, 방문하면 된다.

△라사(Lhasa)

이 곳에서는 라사의 전경 사진과 불교 조형물들을 열람할 수 있다. 라사는 해발 3,700미터 고지대에 위치한 성지. 호흡장애와 두통을 일으키기 쉬운 고원 도시이지만 포탈라궁과 조캉사원을 비롯해 큰 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례객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라사의 중앙에 있는 조캉사원 담장, '바코르' 사진도 제공된다. '바코르'에는 부처님 성도를 뜻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순례자들은 '바코르'를 따라서 '오체투지'를 한다.

티벳순례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포탈라궁이다. 13층 높이에 3백미터의 폭을 자랑하는 포탈라궁은 역대 달라이라마들의 수행과 숙소였다. 7세기경부터 짓기 시작해 15세기에 완성된 이 궁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카일라스(Kailas)

티벳인은 카일라스를 지구 에너지의 중심축, 수미산으로 여긴다. 이 사이트에서는 해발 6,714미터에 이르는 성산(聖山) 카일라스의 풍광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진들을 열람할 수 있다.

카일라스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계곡을 따라 순례자들, 순례도중 간이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 구름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카일라스 등 20여점의 풍광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

△구게왕국(Guge Kingdom)

티벳의 역사에도 불교를 탄압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 시절 티벳인들은 해발 4천미터 고지대로 피해 새로운 왕국, 구게왕국을 세웠다. 이 사이트에서는 '황폐해진 구게왕국의 불탑군' '쵸르텐 주변의 기도문이 새겨진 마니석' '볼링사원' '자다마을 사람들' '토굴' 등을 담은 사진들을 그래픽 파일로 제공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라사
http://mayer-carpets.org/travel/potala_in_lhasa.htm
http://travel.epicurious.com/travel/g_cnt/06_gallery/asia/tibet/photo1.html
http://www.mg-soft.si/tsunami/barkhor1.html
△카일라스
http://iias.leidenuniv.nl/iiasn/iiasn7/central/mckay.html
http://www.bena.com/nepaltrek/nckphoto.html
http://www.keadventure.com/
△구게왕국
http://www.umma.lsa.umich.edu/orient/koelz/tankas/tanka-styles.html
http://www.khazana.com/newari/newhist.html

아봐타 코스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달음과 평화를 얻으십시오.

아봐타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 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한 매우 강력하며 빠른 효과를 가져오는 코-스(프로그램)이다.

3부로 나누어진 아봐타 코-스의 목표는 자신의 신념체계를 탐구하도록 안내하며 스스로 바꾸기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봐타 코-스는** 자신의 개의식의 속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여는 것이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모든 만물을 낳고 자성이 본래 오고감이 없음을 아봐타 코스에서 당신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아봐타 코스는 7일~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에게는 무료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지하철 양재역 5번출구~마을버스(구룡사행) 삼호물산 하차

慧元 아봐타 센터

주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3 은혜빌딩 2층
전화: (02)579-9379 FAX: (02)572-5514

법사신년하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하여 불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불교인 모두가 새롭게 느낄 때 입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기묘년 새해를 맞아 법사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모임을 갖고저 하오니 일선 현장에서 포교하시는 법사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 1999년 2월 9일 (화) 14:00
■장 소 : **동산교육회관** (서울 안국동로터리)
■대 상 : 1. 불교대학 및 포교원 운영법사
2. 일선현장을 포교하는 법사
■문 의 : 사무국
☎ 02-732-1218 F. 732-1207

한국불교 **전국법사연합회**

공동대표: 선진규 한정섭 정병조

(사무총장 - 김 재 일)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의 저자

생생하고 감동적인 신행의 현장, 방방곡곡 영험도량에서 부처님의 은력(恩力)을 체험한다!

10년 지병을 3일만에 낫게 하고, 30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며, 죽을 고비마다 나타나 삶으로 이끌어주신 부처님. 참회와 발원이 바탕을 이룬 청정한 마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간곡한 기도로 운명까지 바꿔버린 우리들의 영험담!

신국판/값 5,000원

대원미디어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우:140-190)
대표전화(02)757-6717 팩시밀리(02)775-8043